

김윤석 “류승완 감독, 24시간 현장 속에 살아”

류 감독과 두어 번 작업 기회 있었으나 어긋나
“조인성 나보다 어리지만 절제력·이성적 배우”

배우 김윤석이 영화 ‘모가디슈’로 첫 호흡을 맞춘 류승완 감독과 배우 허준호, 조인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윤석은 26일 열린 ‘모가디슈’ 관련 화상 인터뷰에서 류승완 감독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작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류승완 감독과 작업을 꼭 같이 해보고 싶었다. 두어 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스케줄 등 이유로 만나 지를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어긋나면 다시 시나리오를 주기가 힘든데 다시 한번 ‘손발을 맞춰보자’ 해서 시나리오를 주셨고 읽자마자 흥미를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류승완 감독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신발을 안 벗고 자겠다”고 표현했다. 이 양반은 24시간을 영화 현장 속에 산다. 항상 신발을 안 벗고 잘 사람처럼 보일 만큼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별판에 나와서 타잔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너무 흐뭇하고 좋았다”며 “그 긍정 에너지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극찬했다. 콤피로 호흡을 맞춘 조인성에 대

해서는 “어리지만 절제력과 이성적인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김윤석은 “영화 ‘비열한 거리’를 보면서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고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었다. 배우 대 배우로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보다 어리지만 굉장한 절제력과 이성적, 담백함이 연기에 묻어나더라. 그의 연기가 신뢰감을 주는 이유”라며 “주요하는 티키타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호흡이 잘 맞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배 허준호와와 첫 호흡도 곱씹었다. 김윤석은 “허준호는 카리스마와 달리 사석에서는 언제나 웃고 있다. 항상 뒤에서 웃으면서 후배들을 지켜보는데 그분의 그런 모습이 림용수 대사와 상당히 겹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품에서는 처음 만났는데



오래오래 작업을 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석진, 매니지먼트

‘구’와 전속 계약 체결

이요원과 한솔밥

배우 하석진이 매니지먼트 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매니지먼트 구는 26일 “하석진과 한 식구가 되어 매우 기쁘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에 더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석진은 2005년 CF ‘대한항공-황산 편’으로 데뷔해 MBC TV ‘슬픈연가’로 안방극장에 진출했다. 이후 ‘거상 김만덕’, ‘무자식 상팔자’, ‘상어’, ‘세번 결혼하는 여자’, ‘전설의 마녀’, ‘혼술남녀’, ‘자체발광 오피스’, ‘당신의 하우스헬퍼’,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등에 출연했다.

매니지먼트 구에는 이요원, 고원희, 정시아, 민도희, 윤경호, 서지훈, 권혁, 백수장, 오희준, 김주영, 유인수, 박미현, 조수지, 이태형, 김태은, 박보연 등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뮤지션 주니, ‘마녀식당’ OST 참여

뮤지션 주니(JUNNY)가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OST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주니가 부른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OST ‘Alone’은 따뜻하고 트런디한 사운드 위에 주니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입혀져 몽환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4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

이 곡은 케이윌의 ‘말해! 뭐해?’, 편지의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업한 히트 작곡가이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음악감독 허성진과 JUNNY(주니)가 함께 작업했다.

박지훈, 미니앨범

다음달 12일 발매

26일 자정 박지훈은 공식 SNS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의 컴백 포스터 이미지를 게재했다.

공개된 이미지 속 박지훈은 빨간색 니트와 체크 패턴의 재킷을 매치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또 카메라를 응시하는 우수에 찬 눈빛이 설렘을 유발했다.

이번 컴백 포스터를 통해 박지훈은 네 번째 미니 앨범명 ‘마이 컬렉션(My Collection)’을 공개했다. 이어 8월 12일 일로 컴백 일자를 확정 지었으며 가수 박지훈의 모습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높여줬다.

‘갈매기’ ‘우리, 둘’...광주극장 독특한 소재 영화 상영

29일~다음달 5일... ‘휴먼 보이스’ ‘잘리카투’



광주극장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화 ‘갈매기’를 비롯해 ‘우리, 둘’(이상 29일), ‘휴먼 보이스’(8월1일), ‘잘리카투’(8월5일)를 잇따라 개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광주극장 제공)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엄마’ ‘동성연애’ 등 독특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광주극장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화 ‘갈매기’를 비롯해 ‘우리, 둘’(이상 29일), ‘휴먼 보이스’(8월1일), ‘잘리카투’(8월5일)를 잇따라 개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미조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갈매

기’는 평생 스스로를 쟁겨본 적 없는 엄마 ‘오복’이 험한 사건을 당한 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작품은 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엄마 역의 정애화와 이상희, 고서희, 김가빈, 김병준 등이 출연한다.

영화 ‘우리, 둘’은 동성연애를 하는 나나와 마도 두 여인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로 제46회 세자르영화제에서 총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을 수상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로맨스 영화로 떠올랐다.

영화 ‘휴먼 보이스’는 사랑이 식은 연인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마지막 통화를 하는 여자의 감정적 변화를 담은 드라마이다.

과격적인 소재와 감각적인 연출로 평평이 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장 콕토의 동명의 희곡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첫 번째 영어 영화이다.

시골 마을의 푸줏간(도축장)에서 도망친 물소 한 마리를 잡기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을 주민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 ‘잘리카투’는 액션, 스릴러, 블랙코미디, 호러 등 다양한 장르의 장점을 하나의 작품에 접목한 리조 조세 펠리세리 감독의 작품이다.

스마트스터디, 세계 최대 키즈 엔터 니켈로디언과 협업

아기상어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 영화 제작

“베이비샤크 빅 쇼’를 새로운 TV 시리즈와 영화로 재탄생시킨다.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 키즈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니켈로디언과 협업해 TV 애니메이션인 아기 상어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Baby Shark’s Big Show!)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스마트스터디는 니켈로디언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스마트스터디는 니켈로디언과 2019년 ‘핑크퐁 아기상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베이비샤크 빅 쇼’를 선보였다. 미국 니켈로디언 채널에서 공개한 원작이 방영 첫날 2~5세 유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방영되며 온 가족이 즐기는 패밀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흥행에 힘입어 양사는 ‘베이비샤크



빅 쇼’를 영화로 제작한다. 흥행력을 입증한 TV 시리즈를 스크린으로 옮겨, 원작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에 니켈로디언과 제작하는 ‘베이비샤크 빅 쇼’ TV 시리즈 시즌 2는 미국 시장에 먼저 공개된다. 시즌 1과 마찬가지로, 30분 가량의 에피소드 26편 분량이다.

장기용, 다음달 23일 입대... ‘입대 장소·시간 비공개’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촬영 마무리 후 입대

배우 장기용이 입대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6일 “장기용이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촬영을 마무리 하고 8월 23일 입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다. 소속사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장기용을 응원해 달라”고 했다. 장기용은 2014년에 데뷔해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 헤어졌어요’ ‘김씨에게 입력하세요 WWW’ ‘간 떨어지는 동거’ 등에 출연했다. 현재 송혜교·최희서 등과 함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찍고 있다.

‘K팝스타 5’ 우승자 CHAI

월드스타 엔터와 전속계약



‘K팝스타 시즌5’ 우승자 CHAI(이수정)가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6일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CHAI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독보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CHAI와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뮤지션으로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CHAI가 성장해 나가는데 지

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HAI는 본명인 이수정으로 지난 2016년 방영된 SBS 서바이벌오디션 ‘K팝스타 시즌5’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9년 6월 CHAI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싱글 ‘Give and Take’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이어 ‘Time’s Up’, ‘Gimme That’ 등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발표했다.

이날 CHAI는 소속사를 통해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와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작업하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라고 인사를 남겼다.

레전드음악교실-랄라랜드 내달 첫방송

신동엽, 김정은 등 출연

채널A 신규 예능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8월 첫 방송을 앞둔 채널A 새 음악 예능 ‘레전드 음악교실-랄라랜드’는 노래에 진심인 출연진들이 모여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에게 직접 노래를 배우는 ‘원 포인트 레슨’ 뮤지션인 멘트 예능이다.

‘랄라랜드’의 신동엽, 김정은, 이유리, 조세호, 고은아, 황광희는 레전드 가수에게 직접 창법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이후 원곡자의 가장 스타일을 100% 반영한 노래 평가 시스템을 통



해 랜덤 가장 미션에 도전한다. 뉴스스

방민아 ‘최선의 삶’, 9월 개봉 확정



배우 방민아 주연 영화 ‘최선의 삶’이 오는 9월 개봉한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초청

‘최선의 삶’은 열여덟 강이, 아람, 소영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 시절의 드라마를 그린 영화다. 제4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이자 아이유가 MBC ‘같이 펀딩’을 통해 인생책으로 소개해 스포트라이트를 더한 임술아 작가의 장편소설 ‘최선의 삶’이 원작이다.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이 출연하고 이우정 감독이 각색, 감독을 맡았다.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에 이어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까지 초청되며 영화 팬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